

‘가정의 달’ 특수는 없었다

대형마트 영업규제·백화점 봄상품 판매 부진 지역 유통업계 5월 매출 전년보다 11% 줄어

경기침체로 매출 감소에 시달리던 지역 유통업계가 가정의 달(5월) 특수를 잡기 위해 고객 모시기에 총력을 펼쳤지만 실적은 저조했다.

지난 4월 22일부터 시작된 대형마트 월 2회 의무휴업에 따른 대형마트의 매출 감소와 이른 더위 등으로 봄 신상품 판매에 어려움을 겪은 백화점도 매출이 기대치를 밑돌았다.

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광주지역 이마트(광주·광산·동광주·봉선·상

무점)의 5월 매출은 전년 대비 11.2%나 줄었다.

특히 윤달 영향으로 혼수상품 인기가 떨어지면서 디지털 가전(-33.9%), 대형가전(-31.9%), 냉장고(-24.8%) 등 가전부분 매출이 크게 하락했다.

홈플러스와 롯데마트도 전국점포 기준 같은 기간 매출이 6.4%, 2.6% 각각 감소했다.

대형마트들의 매출이 큰 폭으로 줄

어든 데는 소비부진도 있지만 윤달과 함께 월 2회 의무휴업 등 영업제한 규제로 영업일수가 줄어든 것이 크게 작용을 했다는 것이 대형마트 측 설명이다.

백화점도 부진했던 봄 정기세일 매출을 만회하고자 다양한 세일 행사를 진행했지만 매출 실적은 저조했다.

지난해부터 경기침체 여파로 매출 실적이 둔화되던 윤달로 혼수 수요가 줄었고, 때 이른 무더위 등 날씨로 인해 봄 신상품 판매가 부진했기 때문이다.

광주신세계 백화점의 경우 지난달 매출이 지난해 같은 달 보다 3.3% 하락했다.

할인율을 높이고 판촉행사도 벌였지만 신사·셔츠(-17.5%), 골프(-

13%), 여성(-6.8%), 캐리터·캐주얼(-8%) 등 봄 날씨 실종으로 주부의 류 부문 매출 타격이 컸다.

반면 더위 등 날씨에 따라 판매량의 변화가 심한 선글라스(30%), 아웃도어(29%), 스포츠(14%) 등은 매출이 증가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도 5월 한 달 동안 매출이 1.4% 증가에 그쳤다.

특히 백화점 주력 상품군인 여성의류(-7%) 부문 매출이 고전을 면치 못했다. 반면 윤달로 인해 늦은 혼수 수요로 인해 가구·홈패션(23%)과 전기·전자 상품군(6%)의 매출이 늘었으며,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스포츠(11%), 골프·레저 상품군(18%)의 상승세도 두드러졌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수입차 수리 ‘짜증’ 정비소 부족·수리비 제각각

국내에서 시판되는 수입차의 정비센터가 많이 부족하고 수리비 산정기준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이 수입차 7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정비센터 1곳당 차량 등록 대수는 메르세데스-벤츠(이하 벤츠)가 3672대로 가장 많았다. 이어 BMW 3306대, 폭스바겐 2677대, 혼다 2625대, 아우디 2589대, 렉서스 2519대, 토요타 1794대 순이었다.

정비센터가 회사별로 규모가 다를 수 있지만 등록 대수가 많으면 대체로 고가의 불편이 커질 수 있다.

수리비의 시간당 공임은 벤츠가 6만8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BMW 6만원, 아우디·폭스바겐 5만5000원, 렉서스 5만원, 혼다 4만4000원, 토요타 4만2000원이었다.

소비자원은 “수입차는 국산차 견적프로그램(AOS)과 같이 신뢰성 있는 수리비 산정기준이 없다. 국내 실정에 맞는 견적프로그램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브랜드별 공식 딜러와 병행수입업체 간 부품가격도 차이가 컸다. 혼다를 제외하고 대부분 공식 딜러의 부품가격이 비쌌다.

공식 딜러의 부품가격을 100으로 했을 때 렉서스는 공식 딜러의 부품가격이 병행업체보다 13포인트나 높았다. 혼다는 공식 딜러의 가격이 오히려 3포인트가량 저렴했다.

연필뉴스



광주은행은 5일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서 송기진 광주은행장을 비롯한 주요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 금융센터 개점 행사를 가졌다. <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 전주금융센터 개점

KJB광주은행은 5일 오후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서 송기진 광주은행장, 윤만순 금융감독원 광주지원장 등 주요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은행 전주금융센터 개점식 행사를 가졌다.

광주은행의 149번째 지점으로 탄생한 전주금융센터지점은 지난 1999년 IMF때 폐점 후 12년 만에 개설돼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전주금융센터지점은 탄소 산업의 메카로 발전하고 있는 전주산업단지

를 비롯해 국민연금공단, 대한지적공사 등 12개 기관의 이전이 예정된 전북혁신도시의 금융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기진 행장은 “지난 1999년 전주 지점 폐점 후 12년 만에 다시 건립한 은행으로 전주 고객들을 만나게 돼 기쁨이 배가 된다”며 “전주금융센터 지점 개점을 계기로 광주은행은 호남 지역의 영업기반을 더욱 더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KB, 하계인턴 300명 채용

KB국민은행(은행장 민병덕)은 대학교 3~4학년생 약 300명을 인턴사원으로 채용한다고 5일 밝혔다.

은행측은 “하계 인턴십 대상은 국내 대학생 250명, 국외 유학생 50명이다. 여름방학인 7~8월에 8주간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인턴십 지원은 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에서 할 수 있다. 접수 시한은 오는 10일까지다. 합격자는 이달 하순 홈페이지에서 발표한다.

KB국민은행은 종합평가로 우수 인턴을 선정해 신입행원 채용 때 서류·필기전형을 면제해줄 방침이다.

연필뉴스

나주 비료공장 드디어 착공

광주권 지역경제 운동사 (18)

나주 호남비료 유치 도민운동 ③

▲서독 루루기사와 건설계약 1957년 4월 20일 비료자금을 향한 도민의 열망을 안고 발착한 호남비료(주) 나주공장 건설추진위원회는 발족과 동시에 내자조달을 위한 거도적인 주식공모에 나섰다.

당시 위원회는 도 산하 각 시·군에 지방위원회를 두고 주식모집 업무를 전담해 했다. 행정기관은 물론 정당, 사회단체 등 도단위 기관

가증권의 표시액면을 출자금으로 인정해 주고 있어 더욱 호응도가 높았다. 주식공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1958년 1월 31일 드디어 서독의 루루기열공업(주)과 연산 8만 5000t 규모의 요소비료공장 건설 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농도 전남의 오랜 숙원을 이루게 된 도민과 광주시민들은 기쁨에 들떠들. 계약체결 다음날인 2월

도에 의하면 이 중 5단보 이상의 시·군 농가에 대한 배분비율이 전체 주식의 44.2%인 11만5000주이고 다음으로 호남비료 중역 인수주가 20.8%인 52만주, 지방 여성단체 및 협회 등의 특수주가 14.2%인 35만5000주, 그리고 연금으로 총당할 것을 전제로 증자금만 지불하고 출자형식을 취한 전남상 이용사회와 유가족회의 특수영예주가 8.8%인 22만주 그리고 호남비료의 주주가 12%인 30만주로 포함 250만주에 자본금 목표액이 25억환이었다. 이 중 대주주 비율은 40만주로 이문환 나주비료 사장과 김형남 전남(지금의 일신방직) 사장이 각각 20만주씩이었다.

그런데 마감실적인 4억5737만 5000환(45만5700주)은 1차불입 목표액의 73%이기는 하나 전체 목표 25억환에 비하면 20%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어서 낙관할 수만은 없는 결과였다. 이에 따라 나주호비는 1차 마감일을 3월 20일에서 3월 31일까지로 연기 했다.

1차불입금에 이어 건설추진위의 주식모집운동이 지속되는 가운데 1958년 5월 1일에는 정부와 나주호비 간에 국내공사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1958년 6월 15일에는 지금의 나주 송월동 1번지의 19만 평 부지에 대량의 호남질소비료(주) 나주공장이 착공됐다. 1953년 충주로 비료공장을 빼앗긴지 5년만에 드디어 350만 도민의 오랜 숙원이 실현된 것이다.

서독 루루기사와 연산 8만5000t 공장 건설계약

모금 운동...비료 배당약속에 영세농까지 참여

들도 시·군 조직을 총동원, 출자독려를 통한 애향애국운동을 주도했다. 그들은 나주호비 건설이 지역경제의 내일을 위한 길일 뿐만 아니라 우리고장 농민이 살 길이요,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길임을 역설했고 도민들의 호응도 적극적이었다. 더구나 그때 나주호비는 출자자들에 대한 혜택으로 비료구매의 우선권을 부여했으며 출자금에 대한 이익을 비료로 현물배당하기로 했다.

당시 비료의 암거래 가격은 공정가의 3배에 이르고 있었기 때문에 농민들은 호비의 이같은 방침이 알려지자 앞다투어 주식공모에 호응하고 나섰다.

또 토지개혁으로 말미암아 지가 증권을 가지고 있던 지주들도 지

1일 박인천 광주상의 회장이 이문환 사장에게 감사장을 전달하고 2월 7일에는 도내 기관장들과 상공인들을 초청 이문환 사장을 위한 축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박인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비료공장 건설로 증산과 외 자질약을 기할 수 있게 된데 대해 이문환 사장에게 감사를 표했다.

▲호남비료 나주공장 착공 도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에 힘입어 호비건설추진위의 주식공모운동은 마감일인 1958년 3월 20일 제1차 불입금 6억2500만원 중 73%인 4억5737만5000환의 실적을 기록했다. 당시 호남비료가 발행하는 주식의 액면가는 1000환이며 목표주식은 250만주였다. 1958년 3월 22일자 경향신문 보

위 중 (연문인)

5월 광주·전남 주식거래 2935억 줄어

유랍발 재정위기와 미국 주요 경제 지표 부진 등으로 국내 증시가 부진을 거듭하면서 지역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도 얼어붙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가 발표한 ‘2012년 5월 광주·전남지역 주식거래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주식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크게 감소했다.

지난 5월 광주·전남지역의 거래량은 5억1092만주로 전년대비 5062만주(9.02%) 감소했으며, 거래대금도 2조3878억원으로 한 달 만에 2935억 원(10.95%) 줄었다.

거래량 상위종목은 유가증권의 경우 미래산업, 티씨엔코, 우리들제약, 대영포장 순이고, 코스닥에서는

온세텔레콤, 테라리소스, 와이즈프라이, 오픈베이스 등의 순이었다.

거래대금 상위 5개사는 유가증권의 경우 삼성전자, LG화학, SK하이닉스, KODEX퍼블리시 순이고, 코스닥에서는 안철수연구소, 셀트리온, 메디포스트, 네오위즈게임즈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57 호남예술제

새싹그리기 축제

1. 개요: 작품공모

- 대상: 전국 미취학 어린이
- 시상: 우수상, 금상, 은상, 동상, 입선
- 기간: 2012년 6월 11일(월) ~ 6월 15일(금)
- 결과발표: 2012년 6월 26일(화), 호남예술제 홈페이지(http://art.kjmedia.co.kr)에 발표
- 작품크기: 8절(개인 용지 사용가능)

2. 참가

- 참가비: 7,000원 (20명 이상 단체할인 4,000원) ※ 단체는 접수 전 연락바랍니다. (062-220-0541)
- 접수처: 광주일보사 문화사업국 새싹그리기 축제 담당자 앞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 우편번호 501-711

3. 유의사항

- 출품된 모든 작품의 판권 및 저작권은 광주일보사에 귀속되며 반환하지 않음
- 우편접수 시 작품이 훼손되지 않도록 포장상태에 유의하시기 바람
- 본인의 작품이 아니거나 심사대상에 결격 사유가 인정될 시 시상에서 제외됨
- 공제내역 외 사항은 일반적인 대회요강에 준함

주최 | 광주일보사

협찬 | SAMSUNG 삼성생명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호남예술제 홈페이지 http://art.kjmedia.co.kr